국산 맥주도 '4캔에 만원'…주세 종량세 전환

맥주·막걸리 과세 체계 내년부터 개편
맥주 리터당 830.3원·막걸리 41.7원
생맥주 311원↑…2년간 20% 한시 경감
고품질 막걸리 출시 쉬워져 시장 확대 기대

내년부터 캔맥주 가격이 100~150원가량 내린다. 주류세 과세 체계를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주류 업계는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맥주와 탁주(막걸리)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한다.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감안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맥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병맥주는 ℓ당 1300원, 페트맥주는 1299원, 생맥주는 1260원으로 각각 23원, 39원, 445원 오른다. 반면 ℓ당 1758원 붙던 캔맥주는 1343원으로 415원 내린다.

다만, 생맥주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20%를 경감해 ℓ당 664.2원의 세금을 매긴다.

주류 과세 체계가 이처럼 개편되면 주세가 100~150원가량 내려가 국산 캔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맥주·탁주 종량세(수량에 따라 세금 부과)로 전환

1.맥주 개정세율 – 830.3원/ℓ ('17, '18년 세율 평균)

	ℓ당 주세(원)			ℓ당 총 세부담(원)		
구분	현행	개정	증감	현행	개정	증감
병	814	830	16	1,277	1,300	23
캔	1,121	830	-291	1,758	1,343	-415
페트	803	830	27	1,260	1,299	39
생맥주*	519	830	311	815	1,260	445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2년간 20% 경감(830.3원/ℓ → 664.2원/ℓ)
※ℓ당 총 세부담: 주세·교육세·VAT 포함

2.탁주 개정세율 – 41.7원/ℓ ('17, '18년 세율 평균)

자료/기획재정부 연합뉴스

반면, 수입 맥주는 종류별로 세금이 소폭 내리거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가 수입 맥주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맥주 업계와 유통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4캔에 1만원' 수입 맥주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맥주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개편에 대해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환영했다.

현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온 종가세 방식에서는 국산과 수입 맥주의 과세 기준이 달라 수입 맥주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덜 부과됐다.

이 경우 편의점에서 2850원 안팎에 팔리는 국산 500㎖ 캔맥주의 주세가 146원 내려간다. 355㎖ 캔맥주는 주세가 103원 줄어든다.

수입 맥주는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일부 고가 맥주는 종량세로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기존 ℓ당 세 부담이 900~1000원이었던 고가 수입 맥주는 830.3원으로 세 부담이 줄지만, ℓ당 세 부담이 700~800원대인 저가는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종량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변화는 글로벌 맥주 업체들의 국내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맥주 업계 관계자는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 과세 불평등 문제가 사라질 경우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 맥주를 한국에서 현지 생산해 공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진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더 많은 '4캔 1만원' 맥주를 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촉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치된 예측이다.

종량세 도입으로 국산 맥주에 불리한 세제가 바로잡히면서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 확장에 제동이 걸릴지도 관심거리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2012년 4%대에서 2018년 20%로 5년 만에 4배 이상이나 성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국산 맥주보다 다양한 수입 맥주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맥주 업계가 품질을 높이지 않는 한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탁주 업계도 종량세 전환이 막걸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막걸리(탁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탁주 업계 관계자는 "기존 탁주 세율이 높지 않아서 세제개편에 따른 탁주 가격 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탁주 시장에서 고품질 원료를 사용한 막걸리 출시가 더 쉬워져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아찔한 단맛 '흑당 버블티' 전성시대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관은 대만 '흑당 버블티'를 맛볼 수 있는 '흑화당' 팝업 스토어를 오는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백화점 등 흑화당 임시매장 오픈
당류 하루 권장량 훌쩍 넘어서

'극한의 단맛'을 내세운 흑당(黑糖) 버블티가 올 여름 음료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흑당 버블티는 홍차에 우유를 넣은 밀크티에 흑설탕을 졸인 시럽과 타피오카 펄을 넣으면 완성된다.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진한 흑당이 우유 사이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담은 인증사진이 수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만 국민 음료'라 불리는 흑당 버블티는 지난해 서울 등을 거쳐 올해는 광주 고객도 공략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달 말 지하1층 식품관에 흑당 버블티 전문점 '흑화당' 매장을 열었다. 흑화당은 최근 서울 등 국내 점포를 낸 대표 흑당 음료 프랜차이즈들 중 한 곳이다. 광주에는 '팝업스토어'(임시 매장) 형식으로 문을 연 흑화당은 오는 8월31일까지 '흑당 버블 밀크티', '흑당 버블 아이스크림' 등 5종을 4000~5000원대에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도 지난 4월 흑화당 임시 매장을 열어 호응을 받았다.

대만·중국 상하이 등 외국 흑당 음료의 진입에 국내 업계도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밀크티 판매 부문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차와 던킨도너츠, 빽다방 등 대형 커피전문점은 여름에 맞춰 흑당 음료를 앞다퉈 내놓았다. 에쏠로지, 메가커피, 요거프레소, 토프레소, 더벤티 등 중소형 커피전문점 역시 '흑당 버블 밀크티', '흑당 버블 라떼' 등 비슷한 음료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흑당 버블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비결은 아찔할 정도로 진하고 깊은 단맛 때문이다. 각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500㎖ 용량의 흑당 버블티를 한 잔 마시는데 함유된 당류는 50~60g에 달한다. 커피전문점에서 한 번 짜는 시럽(6g)을 열 번 넣는 셈이다.

영양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차, 던킨도너츠, 요거프레소 제품 당류 함유량은 세계보건기구(WHO) 성인 기준 하루 권장섭취량 50g을 훌쩍 넘거나 육박한 수준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은 2010년 하루 69.9g에서 2016년 73.6g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2020년까지 당 섭취량을 적정 수준(성인 기준 하루 50g)으로 줄이기 위해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싼 패딩·모피 싸게 구매하세요"

롯데백화점 역시즌 상품 최대 70% 할인

여름에 모피·패딩 의류 등을 싼 가격에 구매하는 '청개구리 쇼핑' 기간이 예년보다 빨리 진행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6~9일 '진도모피' 패밀리 대전을 연다. 지난 달 일주일 동안 진행한 '아웃도어 역(逆)시즌' 행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할 정도로 '역시즌 마케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광주점 측 설명이다. '진도모피'는 행사 기간 동안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선보이며 100만원대 초특가 기획 모피도 한정 수량 내놓는다.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금액 5%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광주지역 롯데아울렛 역시 다양한 역시즌 상품을 마련했다.

롯데아울렛 월드컵점은 6~12일 아웃도어 다운·패딩 대전을 진행한다. '블랙야크', '네파', '디스커버리' 등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의 다운류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몽벨 경량다운은 4만9000원부터 선보인다.

아웃도어 브랜드별 역시즌 행사는 롯데백화점 광주점(12~16일), 롯데아울렛 수완점(13~19일)에서도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래시가드 입고 물놀이 가볼까~ ㈜광주신세계 패션스트리트 '밸롭' 직원이 5일 오후 물놀이가 활발한 여름을 맞아 래시가드 수영복과 방수 백, 스노클링 마스크 등 다양한 수영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좋음.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병원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공장 광주 북구 연제동 건물 : 2484.32㎡(751.5평) 지상2층 건물만매각.
감정가 : 40억5천만원 최저가 : (15%) 5억9천5백만원 (토지 임대가능)
공장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56%) 8억3천3백5십만원**
공장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토지 : 3305.7㎡(1000평) 건물 : 492㎡(148.8평)
지상2층 **감정가 : 7억8백4십만원 최저가 : (70%) 4억9천5백9십만원**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56%) 22억6천만원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근린주택 목포시 옥암동 토지 : 555.7㎡(168.1평) 건물 : 1210.35㎡(366.1평)
지상4층 **감정가 : 15억9천8백만원 최저가 : (70%) 11억1천8백5십만원**
임야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토지 : 12900㎡(3902.3평)
감정가 : 1억9천3백5십만원 최저가 : (45%) 8천6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